

전북혁신도시 주민들 문화갈증 해소

'혁신도시 문화를 입힌다'

오는 3월 2일부터 10개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공간이 오는 3월부터 운영된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내 한 건물에 강의실과 다목적실, 사무실, 북카페 등을 갖춘 '혁신도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10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혁신도시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요가교실과 중국어교실 등 10개 문화강좌 프로그램 및 북카페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혁신도시 문화공간이 조성되면서 그간 문화·체육시설 등이 부족해 충분한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했던 인근지역 주민들의 문화갈증이 해소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 하나빌딩(완산구 오펜로

43-24) 4층에 위치한 혁신도시 문화공간은 총 337㎡(약 102평) 규모로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의실 2곳과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역할을 할 북카페도 조성된다.

특히 시는 당초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 운영 프로그램을 10개로 늘리고, 다목적실을 기존면적의 두 배 가까이 확장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2월 중 다목적실 리모델링과 시설 설치, 물품 및 집기류 비치를 완료하고 오는 3월 2일 혁신도시 문화공간을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혁신도시 내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혁신도시 문화공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

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혁신도시 주민들은 도서관과 수영장, 체육시설, 복지센터, 영화관 등 문화시설이 없어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부지선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혁신도시 내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앞서 주민들의 시급한 문화 수요 충족 및 문화갈증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문화공간을 먼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문화공간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전북도교육청 수확나눔학교 공모

전북도교육청이 수확나눔학교를 공개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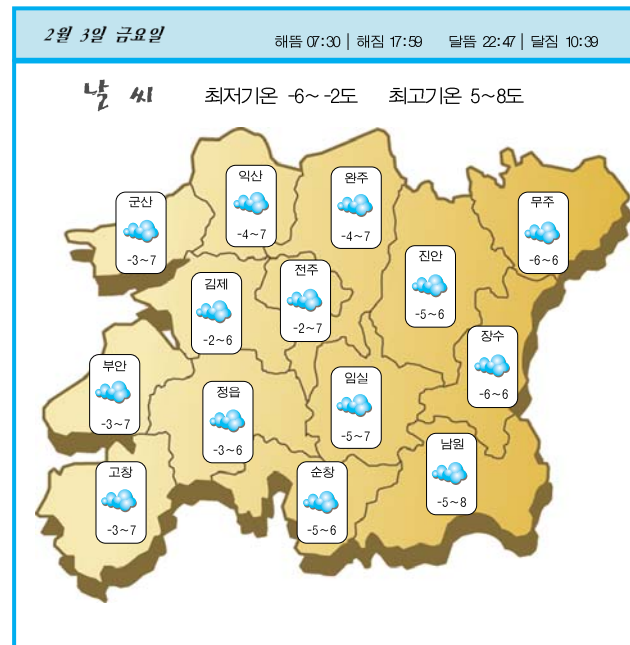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학생 중심의 수학교육 활성화 차원이며 총 35개 학교를 선정한다.

수확나눔학교는 수학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부족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교당 500만원을 지원해 교구를 활용한 탐구 수업, 학생 수학동아리 운영, 교내 수학탐구대회 등 학생중심의 수학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또 또래 멘토링제 수학학습, 학생 수학학습 실태조사, 수학클리닉 등을 운영하게 된다. 수확나눔학교는 초 14개교, 중 14개교, 고 7개교 등 총 35개 학교를 선정하게 되며 운영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이다.

한편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15년 11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초 8.1%, 중 18.1%, 고 23.5% 학생이 수학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오는 7일까지 신청서 접수

전북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키로 하고 오는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탁교육기관 지원자격은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직속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이며 기한내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자와 근무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신청기관을 상대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공공성,

교육시설, 교원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이 중점 심사내용이다. 선정 결과는 24일 통보할 예정이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내년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2학기제) 운영하게 된다.

위탁기관에서는 위탁학생 심사,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필요 경비 등의 등을 위해 '대안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학업 중단 학생 등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지원하고 있다"며 기관과 법인,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제도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신규 교사·지방공무원, 승진예정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제도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의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보면 우선 신규 교사·지방공무원에 대해 공직의 자세, 행동강령을 2시간 교육한다.

또 교감 등 승진예정자에 대해서 2시간의 청탁금지법 준수 등을 교육하며 4급 이상 공직자와 교장은 리더로서의 올바른 청렴관 확립을 주된 내용으로 한 5시간 청렴교육이

수를 의무화하게 한다. 이와함께 교감급 이상 1,6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받게 하고 도교육청 직원, 각 학교 청탁방지담당관 등 3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도 추진한다.

사이버 청렴교육도 추진한다. 전북교육연수원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 목민서신,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 사이버연수 7강좌, 65시간을 개설해 운영한다.

/정해은기자

전북대-호주 스윈번공대, 공동 박사학위 프로그램 MOA

탄소 융합분야 공동 연구소 설립 추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호주 스윈번 공과대학교와 공동 박사학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MOA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양 대학이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탄소 융합 분야에서 공동 연구소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스윈번 공대는 호주의 대표적인 교육 도시인 멜버른에 위치한 공립 대학으로 1908년에 설립돼 총 6개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명문 대학이다.

지난 2015년 일반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양 대학은 그간 공동 학부생을 교환하는 등 교류를 이어오다 이번에 공동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공동 연구소 설립 추진 등에 대한 논의 등 연구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게 된 것.

이를 위해 이 총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스윈번 공대를 직접 찾아 생체공학 응용 분야의 세계 석학인 알란 라우(Alan Kin-tak Lau)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교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양 대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상대 대학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호주 스윈번 공과대학교와 공동 박사학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MOA를 체결했다.

전제로 공동 박사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 융합재료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전북대는 스윈번 공대와 이 부분에 교류를 긴밀하게 진행해 양 대학에 공동 연구소 설립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대학 간 교류뿐 아니라 각국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끌어 내 탄소 융합 분야에서 국가 간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총장은 "탄소 융합 분야에서 첨단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양 대학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대학을 넘어 양국의 이익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공동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양국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의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